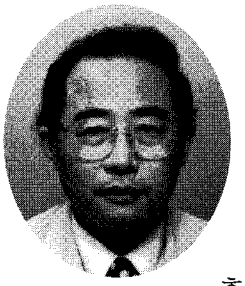
농업도 고유가에 대비해야

OECD, 올 겨울 고유가 전망, 생산비 절약만이 藥
절약형으로 작부체계 바꾸고 새 난방법 개발해야

■ 이보길 KBS 해설위원



최근 미국은 국제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자 전략 비축유를 풀기로 했고 여기에 힘입어 국제유가의 오름세가 멈추긴 했지만 유가가 떨어진 속도만큼 빠르게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은 10월에 방출되는 전략 비축유 3천만 배럴은 2일 소비량에 불과할 정도로 물량이 많지 않아 심리적인 효과에 비해 시장의 수급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석유 전문 에널리스트 들도 미국내 정유시설 부족과 시장의 불안 심리 팽배 등으로 유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CBS 마켓워치는장기적으로 볼 때 유가는 하락세가 아니

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략 비축유 방출 자체가 유가 상승의 끝은 아니며 비축유 방출이란 요인에 의해 값이 배럴당 6$이나 쉽게 내려 갈 수 있는 것처럼 6$이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코노미 닷컴도 3천만 배럴은 그리 큰 물량은 아니며 이번 조치로 유가가 단기적으로 내려 갈 수는 있지만 결국 재 상승을 타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몇 군데의 기사를 살펴봤는데 하나같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EU도 미국에 이어 비축유를 방출할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당분간 이를 보류하기로 했다. 일본도 국내 수요에 대응키 위해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은 없지만 고유가로 타격을 받고 있는 APEC회원국들에게 비축유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오페크는 미국에 전략 비축유 방출에 따르는 예상효과를 깍아 내리면서 각국 정부의 비축유 방출에 강력한 경고장을 던지고 있다. 릴와누르크만 OPEC 사무총장은 정부 비축유는 진짜 비상사태시에 사용돼야 하며 현 상황은 정부 비축유를 방출할 정도로 위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추가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OPEC측에 증산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리처드슨 미 에너지장관은 NBC 방송에 출연해 미국정부는 유가상황을 지켜보며 유가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번 조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고유가가 지속돼 세계 경제 성장률이 0.4%포인트나 하락 할 것으로 OECD 경제협력기구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OECD는 당장 올 겨울에도 고유가는 계속 될 것으로 내다 봤다.

유가 폭등의 원인

국제원유가가 작년 초 배럴당 10달러 대에서 30달러대로 치솟자 일각에선 석유 메이저(석유산업자본) 담합설, 미국 대선을 둘러싸고 환경론자인 고어에게 타격을 입히려고 부시와 친밀한 석유메이저들이 고유가를 초래했다는 것이며, 미국의 상업용 석유 재고가 크게 떨어지자 헤지펀드들이 선물시장에서 대대적으로 작전을 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가들의 유가 음모론에 대한 추측이고 실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렇다.

지난해 4월 중동지역에선 미국이 의도적으로 유가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돌았었다. 몇 년간 계속된 저유가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산유국들의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미국이 이를 어느정도 보전해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불과 1년여만에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미국은 이제 산유국들에게 끊임없이 증산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 사태까지 가고 말았다. 결국 미국의 유가상승 유도설은 석유시장이 미국을 판단 착오했거나 전문가들의 잘못된 분석이었음이 판명됐다. 그렇다면 유가폭등의 원인은 뭐란 말인가?유럽과 미국은 석유수출국들의 공급부족이 유가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OPEC 회원국들은 석유 소비국들의 과도한

세금과 정제과정의 문제, 투기, 심리적 요인들이 유가 폭등의 진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양측이 내세우는 유가 폭등의 원인은 각각 이해 관계를 반영 한것이지만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고유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경제 전체가 고유가 파고에 무방비로 노출 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 절약 외에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특히 고유가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와 금융시장의 불안이 겹치고 있어 거시경제 목표와 정책 기조의 전환 타이밍도 실기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기 값이 오르는 것을 필두로 경유 등의 기름 값이 올라 이제 교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 졌으며 개인 서비스 요금과 임금도 덩달아 오르게 될 것이다. 물가도 그렇지만 수출도 문제다. 최근 전경련은 국제유가가 30달러의 강세를 지속한다면 내년도의 경상수지 흑자는 8억 달러에 그치고 35달러까지 오르면 경상수지가 21억 달러 적자로 반전돼 고유가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내년도엔 더클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0달러일 때 4%, 35달러일 때 4.6%를 기록 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현재 고유가로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시에 고유가 마저 겹친다면 성장은 곤두박질 치고 물가는 치솟으면서 경상수지가 급속히 악화하는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수지 맞는 농사는 에너지의 절약이 필수다. 이처럼 고유가 시대엔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영농에 투입되는 모든 생산 요소를 최대한 줄여 생산비를 낮추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다.

고유가 영향 받는 農事

정부가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에너지 대책은 제일 큰 것이 전기 값 인상이다. 또 난방유인 중유와 경유값이 동반상승 했으니 당장 올 겨울에 일반 서민 뿐아니라 겨울 농사에 비상이 걸리게 생겼다. 특히 시설농가에선 과중한 난방비를 부담해야 하고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인건비의 상승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그래서 농가의 생산비의 절감은 절대적인 과제다.

일본 농업에서는 석유를 대체 할 수 있는 에너지로 지열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태양열, 바이오매스(동식물 발효시에 나오는 메탄가스 등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폐기물이다. 이 같은 대체 에너지의 대부분은 시설원예농가에서 이용하고 곡물, 목초건조, 분뇨처리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적으로 절약형 농업을 하는 곳은 그런 대로 많다. 자동화하우스에 보온시설을 해 기름을 절반으로 줄인 예도 있고

하우스에 이중 차광막을 씌우고 스프링쿨러로 14℃ 안팎의 지하수를 뿌려 여름에 느타리버섯을 생산하는 농가도 있다. 또 겨울철 시설고추재배를 하면서 개화를 9~10월에 시켜 겨울철 하우스 온도를 7~8℃로만 유지해 난방비를 일반농가의 20%수준으로 절약한 농가도 있으며 폐목을 이용해 화목보일러를 때 난방비를 크게 절약한 농가도 있다.

지금 몇가지 사례를 들어봤으나 최근처럼 고유가가 지속될때는 물론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런때는 정부가 나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수막 재배와 지중 난방으로 전환하는 농가엔 시설 전환자금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할 것이고 면세유 공급도 올해 2백59만5천㎘인데 시설재배 농가를 위해 이를 더 늘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열효율이 높은 액화석유가스(LPG)의 면세공급도 늘려가야 될 것이다.

시설재배 농가는 기름 사용량을 얼마나 줄일수 있는가에 따라 겨울 농사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한다. 이런 에너지 자원은 지금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장기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작목 재 배치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농업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지역 실정에 맞는 작부체계와 기술개발을 통해 시설원예농가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설 원예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저온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폐자원을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도 개발해 이를 농가에 보급해야 할 것이다. 수지 맞는 농사는 에너지의 절약이 필수다. 이처럼 고유가 시대엔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영농에 투입되는 모든 생산 요소를 최대한 줄여 생산비를 낮추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난방용 연료를 비롯해 사료, 비료, 농약, 하우스 기재등 모든 영농자재가 절약 대상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을 보완하거나 시설 자체를 바꾸고 부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난방용 연료를 값이 싼 벙커 C유나, 열효율이 높은 LPG, 연탄 등으로 바꾸거나 하우스내의 보온시설을 보강해 열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또 음식찌꺼기의 사료화, 암모니아 볏짚사료, 조사료 등의 대체사료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큰 의미에서 에너지 절약에 들어간다고 하겠다.

고유가엔 절약이 藥

국제유가가 지금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로 약간 수구러지긴 했어도 OPEC는 기름 값이 떨어 질 경우에 감산을 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고유가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물가도 오르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 농가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벌써 지난 9월의 물가가 크게 뛰었는데 이런때 일수록 절약농업이 긴요할 때이며 전 산업은 물론 국민 개개인도 모두 에너지 과소비의 습관에서 벗어날 때라고 생각된다.

다시 한번 강조 하지만 우리의 농업, 이젠 에너지 절약형으로 작부체계를 바꾸고 새로운 자원을 이용한 난방법을 개발하며 시설하우스를 혁신적으로 에너지 절약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겨울철엔 공동으로 난방을 이용해 경비를 줄이는 것도 에너지를 잘 쓰는 방법이 될 것이다. 수지 맞는 농업을 위해 이젠 과감히 모든 걸 바꿔나가야 할 때이다. 농약정보